

故 鄉 通 信

죽 안 박 계 수 < 본회 회원 >



밤 하늘엔 별순이 달순이가 의붓아버 밑에서 콩쥐
 팔쥐처럼 살고, 웅덩이엔 천년 묵은 이무기가
 등천할 날 기다리고 헛간에선 몽당 빗자루귀신이 푸른
 눈빛으로 꺼꾸리 춤을 추고, 곳집에선 밤바다 생일잔
 치 벌리던 도깨비떼들….

그때 그 귀신 잡동사니들, 모두 안녕하실까?
 주막집 개장술에 불 때주던 춘삼이, 흑끼 세워놓고
 논두렁에서 노름판 벌이던 칠성이, 바우, 포마드 덕지덕지 바르고 미장원 아가
 씨 찾아 다니던 용팔이.

그때 그 친구들 지금은 다 무엇할까?

돼지새끼 애써 키워 강물에 띄워 보내고, 배추를 키우면 갈아 엎어야 하고,
 봄이 되면 한 두 집씩 광산으로 떠나던 그때 그 고향, 여태 그대로일까?

눈 맞으면 살라꼬? 언년이 할미 눈총 속에 팔뚝때리기 화투치고 동동구리
 무 장사치 편에 오동추야 따라 배우고, 정원엔 모듬밥 핑계로 잘도 모여 놀
 았는데….

그때 그 가시내들, 지금은 뉘집 안방에서 연지곤지 바를까?

개구리 잡아먹던 학수가 목메달아 죽은 감나무, 춘자가 목사 아들과 그렇고
 그랬다는 당나무, 그네 뛰던 아이들이 소나기 피하던 소나무….

그때 그 나무들, 지금도 푸르를까?

별순이 달순이가 울며 크던 밤하늘엔 위성 안테나가 걸리고, 이무기 새끼 치
 던 웅덩이는 텃밭이 되고, 헛간은 경운기 차고로, 곳집은 경도당 트랙이 됐어.

그때 그 귀신들, 지금은 전통민속놀이가 되어 동사무소 창고에 모여 산다네,

딸기코 춘삼이는 접시물에 빠져 저세상 갔고, 칠성이는 콘도 수위가 되고 바꾸는 주유소 사장이 되어 인도어골프장에서 골프나 치고, 용팔이는 예배당 장노가 됐지.

돼지새끼 키워 팔면 논밭 사고 송아지 키워 팔면 딸년 시집 보내고, 하우스를 들쳐 보면 양난꽃이 소복소복.

언년이 할미 그 옛날 옛날에 저승가고 순자는 골프장 캐디 되고, 영자는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바람둥이 춘자는 버스차장하더니 읍내 자전거집 아들과 눈맞아 도망가고, 감나무는 베어서 소공원 벤치되고 당나무는 베어서 경도당 울타리 만들고, 소나무는 지금도 독야청청 하다네.

소달구지 끌던 장씨는 논몰보러 다닌다고 자가용 샀고, 이발소하던 최씨는 읍내 서예학원 다닌다고 차를 샀다네.

고향 온다고 고생고생 차 끌고 와보아야 쳐다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자네 노부모 애간장이나 안타게 10리 밖에 차 세워놓고 걸어 들어오게나.

고향도 골목골목 차 세울 데가 없느니, 꼬부랑 돌담골목길 말끔히 헐려서 외지 몇년 나갔다 오면 낫설이를 한다네. 부엌은 입식으로,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목욕탕엔 사철 더운 물이 펄펄 끓어.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아니면 신지도 않고, 또 제 애비 애미도 사주지도 않아.

새참엔 읍내 아가씨가 허벅지 걷어 부치고 커피 날라오고, 삼겹살 구워 놓고 술 먹자 하면 슬슬 눈치만 살피고, 셋만 모이면 읍내 봉고차 불러 횃집 나들이 간다네.

품앗이 일이 끝나면 노래방은 기본이고, 더러는 내친김에 뽕뽕이도 들고 온다지.

대학에, 온천에, 골프장에, 속풀이 북어국집에, 새벽에도 문을 열어.

어설피 돈벌이 합네 하고 남의 집 처마 밑 떠돌다간 고향 떠난 명분도 되돌아올 체면도 쥐뿔도 없어져.

영구차 타고 고향 올 생각 말고, 명퇴 조퇴 시달리지 말고, 손바닥 지문 남아 있을 때 제 손으로 세수할 힘이라도 있을 때, 농작이며 여편네며 화들짝 싸 들고 서둘러 고향 돌아 오게나. ♪